

권리당원 35%·대의원 45%... 호남은 누구 손 들어줄까

대표경선 관전포인트와 변수

아권 재편의 향방을 가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이하 전대)가 6일로 이를앞으로 다가왔다.

기나긴 경선레이스를 펼쳐온 당대표 후보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남은 2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다.

◇관전포인트=이번 전대는 어느 때보다 계파색과 지역색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우선 경선레이스 내내 친노(친노무현) 주류를 대표한 문재인 후보와 비노(비노무현) 비주류를 대표한 박지원 후보 간 혈투가 벌어졌다. 친노계는 당권 장악 후 총선을 통해 당내 최대 계파를 유지하고 이어 대선후보까지 손쉽게 접수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에 맞서 비노 세력은 친노의 당권 접수로는 당의 변화와 혁신이 이뤄질 수 없고 결국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의 힘이 전당대회 결과로 투영될지, 아니면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계파 타파 표심이 이를 제압할지 주목된다.

또 이번 전대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호남정치 복원'이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두 번의 대선 패배는 물론 10년 가까이 호남 출신 대선후보와 당 대표를 내지 못하면서 갖게 된 호남인들의 정치적 허탈·소외감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연정선상에서 호남 당원들의 선택이

최대계파 친노 당권접수나

비주류 계파 타파나 대결

변화 갈망 표심 어디로

경선률 변경 영향력 관심

주목된다. 전체 선거인단의 75%를 차지하는 권리당원(30%)과 대의원(45%) 중 호남과 호남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호남 권리당원(14만 5836명)은 전체(26만1962명)의 55.6%다. 또 전체 대의원 1만5000여명 중 호남 비율은 10% 전후지만 타지역 대의원 상당수도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호남 대의원의 비율은 최소 30% 이상이라는 게 당내외 분석이다.

◇변수=이번 선거 패배로 새정치연합 내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특히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비주류인 유승민 의원을 원내대표로 당선시키는 등 오히려 역동적 변화를 보이면서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변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계보를 무력화할 정도의 여당의 역동성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선 레이스 막판에 뜨겁게 달군 경선률 변경 논란도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진실 논란 속에 박 후보 측은 이날도 "지난 7·30 보궐선거(김포) 여론조사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 박지원(왼쪽부터)-이인영·문재인 후보가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을"을 위한 민생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을지로 위원회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례 없었다'는 문 후보 측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진실 여부를 떠나 이 논란은 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깨끗한 이미지의 문 후보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또 이인영 후보의 존재감을 잃게 해 확고한 양자 구도로 만든 것은 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권리당원 여론조사 투표율과 대의원 현장투표율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종합 검토할 때, 권리당원에서는 박 후보 우세, 대의원에서는 박 후보의 경합우세가 점쳐지고 있어 투표율이 높을수록 문 후보가 불리하다는 분석

도 있다. 하지만, 친노의 결집력을 고려하면 높은 투표율은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예측도 있다. 1250명 정책대의원 중 1000명이나 추천하는 한국노총 표심도 중요 변수다. 이전 전대까지는 1000명 전체를 한국노총 측으로부터 일방적 추천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500명은 권리당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나머지도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한국노총 지도부의 일방적 추천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조직적 표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승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화 호소·지옥의 강행군...막바지 표심잡기 총력전

文, 대의원 거점 공략

朴, 이틀간 전국 돌아

李, 세대교체 차별화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들은 막바지 선거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후보들은 남은 시간 동안 지역방문과 전화, 언론인터뷰에 주력하며 대의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전화를 잡고 대의원의 거점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6일 서울환경미화원노조 격려 방문 외에는 지방일정을 잡지 않고 사무실에서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특히 이날 성명을 내고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선, "비전 제시는 부족했고, 네거티브만 난무했다"는 비판여론에 뼈 아프다. 면목없다"고 반성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공격

과 갈등의 소재가 됐던 사안도 당 대표가 되면 모두 녹여 내겠다"며 "단언컨대 계파 계보의 '구'라도 안 나오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당대회 현장의 마지막 연설문과 관련, 캠프 관계자는 "문 후보는 메시지에 본인의 속마음과 진심을 담기 위해 무척 애를 쓴다"며 "그러나 오늘(5일) 발표한 성명이 후보의 속마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偏僻한 지역방문 일정을 잡았다.

그는 우선 6일 울산·포항·대구·마산·창원·부산 등 영남을 방문한다. 다음날에는 경기도 전역을 돌고, 오후에는 호남을 방문하는 등 "지옥의 강행군"을 펼칠 예정이다. 편안하게 앉아 전화를 지지 호소하기보다 직접 발로 뛰며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박 후보 측은 호남에서 개인 중에 물을 바꾼 것에 대해 당원과 대의원의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전국을 돌면서 알리

겠다는 계획이다. 또 '박지원'을 지지하면 계파 독점, 계파 폭정을 청산하는 기적은 일으키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전남·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버스를 보내, 운행 중이다.

이인영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선거전략에 대해 "지역을 일부 가고 나머지는 지지 호소 전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마지막 연설에서는 분열과 세대교체를 3분의1 정도 말하고 3분의2는 정말 하고 싶었던 어디로 가는 것이 희망이다 하는 비전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다 채울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남은 기간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일정을 잡되 단 하루는 호남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또 일정 사이사이 언론인터뷰와 전화호소를 통해 문·박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주자·1인2표제...주승용 최고위원 1위 유력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호남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박지원 후보의 당권 도전 성패 외에도 주승용 후보의 최고위원 경선 1위 여부다.

5일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후보는 그동안 경선레이스에서 줄곧 선두권을 형성해 막판 힘을 받는다면 득표 순위 1위로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 후보가 현재 여수에 지역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호남지역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을 해온 점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으로 부터 후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30%, 일반당원(10%)과 국민여론조사(15%)를 합쳐 25%로 구성되는 권리당원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1위로 최고위원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고위원 경선은 1인2표제로 치



러지는 만큼 두 표 중 하나는 호남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 후보의 1위를 점치는 이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연합 권리당원 26만명 중 호남 권리당원은 55% 이상이 되고 나머지 지역 권력에서 절반 이상이 호남 출신이어서 주 후보 측은 호남과 호남 출신 권리당원 20만명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경선레이스 초반 타지역에서 낮은 인지도 때문에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표 확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주 후보가 10년 의정활동 동안 특유의 친화력으로 동료 국회의원·지역위원장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현장 대의원 투표에서도 경쟁 후보들에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다.

주 후보는 전남도의원, 여천군수, 여수 시장을 거친 뒤 17대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3선 의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